

11월 9일 교훈

예루살렘의 멸망

핵심 구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일이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음이라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였더라.”

열왕기하 24:20

선별된 성경 구절:

열왕기하 24:18-20; 25:1-21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에 처한다.” (조지 산타야나, 『이성의 삶』, 1905).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에 희생되었다.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더 많았던 통치 주기를 반복하며,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내를 소진해 버렸다. 그들의

과거는 현재에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열 지파 이스라엘 왕국은 스데기야가 패배하기 약 135년 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당했다. (열왕기하 18:9-12). 스데기야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기로 선택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가올 심판과 유다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경고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에 남아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자는 살리라 그의 생명이 그에게 전리품이 되리니 그가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겨져 점령될 것이라” (예레미야 38:2-3)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낫추라.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고 이 신성한 벌을 받아들이면 살리라. 저항하면 반드시 질병과 짖주림과 폭력으로 죽으리라.” 겸손을 거부하고 오만함을 선택한 시드기야는 반항의 길을

택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 열왕기하 24:18-20

우리는 이 기록에서 교훈을 얻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다른 선택지’를 찾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은 없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 그는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7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속적 욕망에 불쾌하고 거슬리게 느껴지십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 전해진 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을 채찍으로 치시느니라” (잠언 3:11-12). 사도

바울은 솔로몬의 권고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 우리를 훈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혼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훈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9-10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얻은 것과 같은 이해를 가졌다면, 그는 주님께 복종하여 살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일반적으로 처벌적이라고 인식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교훈과 깨달음은 그분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함 안에서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유다가 순종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